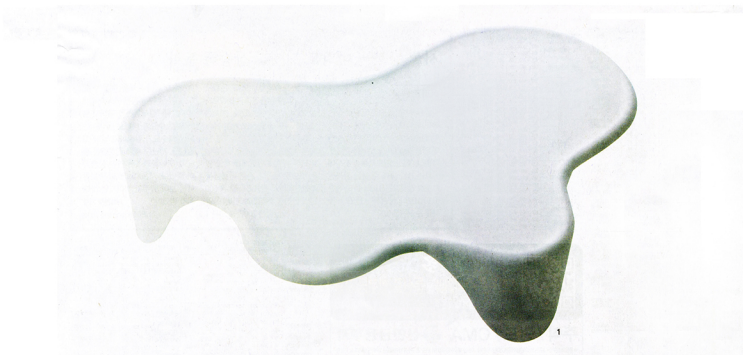




다시 태어난 소반, 군더더기 빼고 쓰임새 더하고



소반 (小盤)

소반(小盤). 얼마 전만 해도 어느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용품이었다. 주로 음식을 차려 나르고 받치는 데 쓰였다. 집 안이나 야외나 어느 자리에 놓아도 소박하면서도 조화되었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소반은 하나 둘씩 사라졌다.

중앙문화디자인연구소와 회광전에서 소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국내 외 건축가·디자인사 10인과 함께 소반의 '미용'을 현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있다. 특히 건축가 다비드 라베스킨도, 일본 디자인사 구로키와 마사유키, 이집트 출신의 디자인사 카림 라시드도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건축가 송홍상(이제그)과 장윤구(윤성동 데코)가 함께 했다. 이쁘게 바니치 디자인사로 유명한 회광문화도 해지문도 가세했다. 그 결과물을 모아 다음 달 한글과 영어로 함께 쓴 책자《소반》을 낼 예정이다. 각기 다른 캐릭터로 재탄생한 소반을 통해 한국적 감수성의 세계화를 기대한다.

전통은 정신에 있다

가구 디자인사 회광문화(송홍상)의 소반은 '부드러운 말'을 삼켜 버어내는 것 같은 형상이다. 소반의 쓰임새를 보다 폭넓게 해석했다. 실내에 조형물을 만들어나는 '오브제' 역할까지 보낸 것이다. 그는 "소반의 기본적 기능을 넘어 쓰는 사람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부드러운 곡선을 주로 이용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회 교수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는 소반에 명상적 요소를 보였다. "모든 작품이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하고요요근처에 어서성을 짓고 있다. 현대적인 지체하고 있다. 단순한 형상으로도 고요하게 어서는 순간을 머리에 그렸다"고 설명했다.

회 교수의 소반의 특징을 패턴이나 재료보다 정신에서 찾았다. 절제된 조형으로 내

면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했다. 전 몸의 미를 다룰 것은 외형에서만 찾기보다는 몇 정신을 소반에 새겨서 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디자인도 예술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디자인에 생활미를 주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가구 디자인사 하지춘씨는 소반의 본래 디자인에 최대한 충실한 작품을 선보였다. 소반이 지난 100여년을 살아온 형태다. 생활문화를 반영해 다리를 높인 소반이다. 공간에서도 여백을 살리는 것으로 유명한 건축가 송홍상은 가구 디자인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방의 미학'을 그대로 담았다.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최대한 간결한 선과 면을 썼다. 자칫 차가울 수 있지만 나무 재료를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내었다.

새로운 재탄생을 담다

장윤구씨의 소반은 과격적이다. 상판과 다리의 구분이 없다. 장치는 서울 대치동에 자리한 김윤주(대치동) '크리닝(Krining)'을 설계한 바 있다. 소리가 울릴 듯한 '스피크모양'의 건물을 조각품처럼 지은 대담함은 소반 디자인에서도 드러나 있다. 그는 "흔히 소반이라고 하면 단순한 다리의 형태. 그러나 원도요 표현하는 삼각을 뒤돌아보면 내가 초점을 맞춘 것은 패턴과 기능"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장충처럼 반바지는 패턴 그 자체가 구조가 되고 기능이 되는 것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작업은 장충에게 특별한 자리가 있다. 그는 "건축과 가구는 스케일과 다름 뿐 디자인 관점에서 동일하다. 다양한 전통기구를 재해석하여 가구 디자인 시장을 계속하고 싶다. 요즘 전통기구를 소중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을 9월 서울디자인만화랑의 파빌리온에 설치한 다비드 라베스킨도는 한쪽에 나타난



2



3



4

동글라진 부분과 바니치 곁을 덮은 결재한 곡선에서 한도를 맞췄다. 경쾌하지만 남가지지 않고, 미용감은 조화롭게 두드러진다. 이집트 출신의 세계적 상업 디자인사 카림 라시드도 이리저리 들고 다닐 수 있는 소반의 유용성을 '다목적용' 타이틀로 붙여줬으며, 구로키와 마사유키는 소반을 일상 의 가구 같은 '작은 고양이'와 같은 존재로 해석한 작품을 내놓았다.

"디자인은 새로운 가치를 찾는 작업"

회광문화 디자인연구소장은 "이번 작업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게 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아이디어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 즉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반' 프로젝트의 일부 작품은 서울디자인만화랑에서 소개될 큰 호응을 받았다. 회 교장은 "지금은 이제부터,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한국의 미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광문화 교장은 "재해석도 통하는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언어로 대화하려는 자세가 먼저다. 전통을 재해석하고 이쁘고 결합하는 것은 디자인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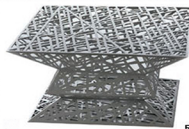
jlee@joongang.co.kr

단순함으로 정신적 측면 강조 -

상판·다리 구분 없이 기능 부각 -

국내의 건축가·디자인사 10명

한국 전통의 미 현대적 재해석



5